

# 여수시 2026 세계섬박람회 대비 '섬 가꾸기' 강화

### 365개 섬 2027년까지 '4차 종합발전사업' 진행...방파제 연장 등 올해 139억원 투입

### 여객선 운임지원·소외 섬 신규 노선...남면 안도·화태도 행안부 '특성화 섬' 공모 선정

365개의 섬을 지닌 여수시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본격적으로 섬 가꾸기에 나섰다.

여수시는 '4차 섬 종합 발전사업' 후반기를 맞아 섬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환경 구축을 활성화한다.

여수시는 지난 2018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10년간 '4차 섬 종합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섬 종합 발전사업은 지난 1988년부터 10년 단위로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38개 섬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972억원을 투입해 섬 지역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했다.

주민소득 증대, 지역 경관 개선, 지역 역량 강화 사업 등이 섬 종합 발전사업에 포함됐다.

4차 사업을 벌인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는 746억원을 들여 사업 164건을 진행했다.

올해는 남면 대유마을 방파제를 연장하는 등 신규 사업 14건을 벌이고 남면 장지마을 연안시설 보강 공사를 지속하는 등 모두 31건의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는 13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내년 사업 건수는 41건으로, 사업비는 191억원으로 늘어난다.

화정면 상화도 방파제를 연장하는 등 신규 사업 21건과 남면 직포마을 북방파제 연장·호안정비 등

20건 사업을 지속한다.

지난해 8월에는 행정안전부 '섬 지역 특성화' 공모사업에서 여수 남면 안도와 화태도가 1단계 사업에 선정됐다.

내년까지 섬 1곳당 4억원씩 총사업비 8억원을 들여 특성화 사업이 펼쳐진다. 이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섬마을 조성을 위한 섬 주민 조직체를 구성하고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올해 공모사업에는 여수에서 돌산 송도, 금오도 직포와 장지, 초도 의성과 대동 등 5곳이 도전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여수 5개 섬은 전남도 공모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대상에 선정돼 섬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2015년 남도가 선정된 이후 손죽도, 연도, 송도, 대항간도 등 여수 5개 섬이 선정돼 각각 5년간 사업을 벌였다. 이들 섬 지역은 각각 사업비 40억~50억원을 확보해 섬 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와 섬 주민 소득 증대에 힘썼다.

지난 2021년 사업을 마무리한 남도는 이 사업을 통해 아영장과 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했으며, 최근 2년 동안 평균 1억3000만원의 수익을 만들어냈다.

면적 178.8㎢에 걸쳐 365개의 섬을 지닌 여수시는 섬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 대책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어촌뉴딜 300'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 사업에 참여한 여수 죽포항 두문마을의 방파제에 조형물이 설치된 모습. <여수시 제공>

서고 있다.

섬 주민 1000원 여객선 요금제를 지난 2021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여수 시민에게는 일반 여객 운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여수-거문 항로를 이용하는 다른 지역민도 반값 운임(1만8050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돌산 신기-남면 여천 항로 여객선을 아간에도 운항할 방침이다.

지난 3월에는 해양수산부 항로 지원사업에 여수 대운도, 소두리도·소횡간도가 선정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어촌뉴딜 300'에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13개 지구가



여수시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365개의 섬을 본격적으로 가꾸고 나섰다.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며 관광지 개발에 나선 여수 거문도 전경. <여수시 제공>

이름을 올렸다.

이들 지역은 총사업비 1092억원을 확보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수산·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벌였다.

여수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도전하며 섬 가꾸기에 팔을 걷고 나섰다.

최근 거문도는 문화체육관광부 'K관광 섬 육성' 사업과 문화재청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며 총 46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는 울촌면 소등이항이 선정됐다. 3년간 국비·도비 39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50억원을 들여 경제 활성화 체계를 다진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통해 섬의 가치와 잠재력을 알리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써 섬 청사진을 마련하는 등 섬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로 삼겠다"며 "여수의 365개 모든 섬이 박람회장이라는 생각으로 섬 정책을 펼쳐, 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섬 발전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득량만·강진만권 지자체 머리 맞댔다

### 보성·고흥·장흥·강진군 정기회의 광주~고흥 고속도로 조기 추진 등 현안 사업·공동 의제 의견 나뉜

보성군과 고흥군, 장흥군, 강진군 등 득량만·강진만권 4개 자치단체가 모여 공동 현안을 논의했다.

보성군은 15일 북재출에서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 2023년 1차 정기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협의회 회장을 맡은 김철우 보성군수와 임용민 보성군의회 의장, 고흥·장흥·강진군 군수와 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득량만·강진만권 현안 사업과 공동 의제 5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4개 지자체는 광주~고흥(나로우주센터)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정부에 조기 추진을 건의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가 진행하는 대표 축제를 지원하고 서



15일 열린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 정기 회의에서 보성·고흥·장흥·강진 등 4개 지자체 군수와 부군수, 군의회 의장 등이 회의를 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로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노력을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또 4개 지역을 연계하는 관광 상품도 함께 개발할 방침이다.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는 지난 2018년 득량만과 강진만 정정연안 보존과 공동번영을 통한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자 발족한 협의회이다. 현재 보성군수와 보성군의회 의장이 공동협의회장을 맡

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지방자치 30년 시대를 맞이해 우리 스스로 자생력을 갖춰나가야 한다"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득량만 강진만권 행정협의회가 앞으로 전국 지자체 협력의 선도적 모델로 발돋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제2의 제주도, 거금도 관광발전 방안은?

### 고흥군 18일 지역발전 전략 포럼

고흥군은 오는 18일 금산면 김일기체육관에서 '제2의 제주도, 거금도 관광발전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2차 2023 지역발전 전략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난 2월 금산면에서 열렸던 지역발전 전략 토론회의 정책제언, '거금도의 관광 발전 방안과 이를 통한 지역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 전문가, 지역민, 관련 분야 종사자, 공직자가 한자리에 모여 다각적인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행사는 이정록 전남대 명예교수의 발제로 시작한다. 이어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 '최근 관광에서 섬 관광의 중요성과 발전 방향'과 심원섭 목포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고흥 거금도 관광발전을 위한 전략과 과제' 등이 진행된다. 이후 전문가 지정 토론과 군민 참여 자유 토론,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고흥군은 이번 포럼에서 나온 사업안을 관련 부서의 검토를 통해 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군은 '밀원-건강숲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동강면에서 1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어 1차 포럼 정책제에 대한 사

업성을 검토하고 있다.

군민, 지역활동가,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누구든지 '2023 지역발전 전략 포럼'에 함께 할 수 있으며, 참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고흥군청 기획실로 하면 된다.

고흥군은 오는 7월 봉래면에서 포럼을 이어가 군민과의 소통 행정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고흥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주민이 직접 고흥이 가진 지역의 잠재력과 가치를 찾아내 '로컬 관광'의 흐름을 선도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 관광을 통한 지역의 수익사업을 발굴하고 거금도의 관광 발전을 위해 고흥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역 주민들이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고 그려나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 고흥군, 안정적 물 공급 위해 도서 식수원 개발

### 남양 우도에 27억 들여 추진...내년 상반기 물 공급

고흥군이 식수난을 겪고 있는 섬마을 주민을 위해 도서 식수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흥군에 따르면 남양면 우도에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27억원을 들여 '남양 우도 도서 식수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도는 섬 특성상 관정을 이용한 소규모 급수시설과 개인 지하수 등을 식수원으로 사용해 왔으나, 매년 지하수 수원이 고갈되면서 생활용수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군은 상수도 조기 공급을 위해 섬 내 관로 4.4km와 배수지(100t), 기압장 시설을 설치했으며 공유수면 구간 내 상수도 관로 가설만을 남겨 놓고 있다.

공유수면 구간 1.34km 관로는 현재 가설 중인 인도교에 매달기 형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인도교 가설사업이 일정 궤도에 오르는 오는 8월 개 사업에 들어가 2024년 상반기 상수도 공급을 목표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우도 주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안정적인 물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을 지속하면서 섬 주민이 맑은 물을 공급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 산업장 이동 건강교실 운영 광양시 보건소

광양시 보건소가 지난 3월부터 5차례에 걸쳐공단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장 이동 건강교실'을 운영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양시 보건소는 지난 3월 ㈜포스코건설을 시작으로 태인동·금호동 공단지역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교실을 벌였다.

근로자 260명이 기초 검사를 받고 건강 상담을 진행했다.교육 시작 전에 모든 참석자는 심뇌혈관 질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지표인 혈압·혈당·콜레스테롤을 측정했다.

건강 상담 뒤에는 '광양시 보건소와 함께하는 심뇌혈관질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보건소 담당 공무원의 강연이 이어졌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 "순천 청년들 따뜻한 밥 한끼 먹이자"

### 시 '장안 밥상' 봄학기 무료 진행...동네 엄마들 강사 참여

순천시가 1인 청년 가구에 따뜻한 밥 한 끼를 지어주는 청년 집밥 교실 '장안 밥상'을 진행한다.

장안창작마당 공유 부엌에서 열리는 '장안 밥상 봄학기'는 오는 17일, 31일, 6월7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회당 15명의 청년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집밥 교실에는 '손맛 좋은 동네 엄마'들이 강사로 나선다.

일감자조림, 메추리알 장조림, 콩자반, 파리고추 멸치볶음 등 다양한 밑반찬을 함께 만들어 한 끼를 든든하게 해결할 예정이다.

제대로 된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교실이 마련됐다.



지난 10일 순천시 장안창작마당에서 처음 열린 '장안 밥상' 행사에서 참가 청년들이 밑반찬 만들기 수업을 듣고 있다. <순천시 제공>

지난 10일 처음 열린 '장안 밥상'에서는 부추전 등을 함께 만들었다.

장안 밥상은 오는 9월 가을 학기로 돌아올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장안창작마당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안창작마당은 2017년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농어촌민박 '곡성스테이' 인기몰이 친절 서비스에 다시 찾는 민박으로

### 지난해 2100명 이용...60% 증가

농어촌민박인 '곡성스테이' 이용객이 지난해 2100명을 기록, 2021년 대비 6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곡성스테이는 관광객들에게 농촌마을의 일상적 감성을 전하기 위해 곡성을 시내권에 조성된 민박으로, 현재 13호점까지 개점했다.

곡성군은 오는 20일 개막하는 '제13회 곡성세계장미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맞아 농어촌민박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최근 곡성

스테이 사업자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 올해 운영계획, 곡성스테이 홈페이지(곡성스테이.kr) 운영방안, 발전방향 등이 논의됐다.

농어촌민박 곡성스테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지역 내 생활인구 확장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스테이의 깨끗한 침구 관리와 친절 서비스를 통해 한번 방문한 이들이 다시 찾을 수 있게 지원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태 기자 pjtk@kwangju.co.kr



곡성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서 열린 '곡성스테이 사업자 간담회' 모습. <곡성군 제공>